

광주 기업 매출 12년 연속 특·광역시 '꿀찌'

2019년 매출 광주 19조5352억·전남 17조1275억원
광주, 특·광역시 6위인 대전보다 2조5109억 뒤져
제조업 종사자 수 광주 1만349명·전남 2829명 감소

제조업 기반이 빈약한 광주 기업 매출액이 2008년부터 12년 동안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2019년 기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1만7000명 줄어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정체된 경기를 반영했다.
11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업체 수(금융보험업 제외)는 광주 234개·전남 221개로, 전국 기업체(1만2885개)에 비해 각각 1.8%, 1.7%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체 수는 1년 전보다 광주는 14개(6.4%) 늘고, 전남은 40개(15.3%)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기업체가 0.8%(98개) 증가했는데,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234개 기업체는 본사·지사·지점·공장·영업소 등 773개의 사업체를 지니고 있었고, 전남 221개 기업체는 575개 사업체로 구성됐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기업 매출액은 광주 19조5352억원·전남 17조1275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광주 매출은 3.6%(6793억

원) 증가한 반면, 전남은 51.3%(-18조원) 감소하며 반토막 났다. 전국 매출은 0.6%(-15조원) 감소했다. 전남은 기업체 수와 함께 매출감소율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17개 시도별 매출액 순위는 전체의 절반 이상(57.0%·1391조)을 차지하는 서울이 단연 1위였고, 경기(521조), 인천(87조), 경남(79조), 부산(61조), 충남(58조), 경북(49조), 울산(43조), 충북(31조), 대구(28조), 대전(22조)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나란히 12-13위를 차지했으며, 전북(14조), 강원(8조), 세종(7조), 제주(3조) 등 순이었다.
광주는 2008년 이후 12년 연속 기업 매출액이 세종시를 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 2007년에는 광주 매출액이 대전보다 1091억 앞섰지만 이듬해부터는 특·광역시 꼴찌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 2019년에는 대전에 매출액이 2조 5109억원이나 뒤졌다.
기업당 매출액은 광주 835억원·전남 775억원으로, 각각 전국 11위·12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기업당 매출액은 1893억원이었다.
전산업(금융보험업 제외) 대비 제조업 매출 비중은 광주 45.3%·전남 68.5%였는데, 광주는 제주(4.8%), 강원(44.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기업 일자리는 광주에서 4165명(-8.4%), 전남에서 1만2550명(-20.4%)이 급감하며 무려 1만 6715명이 빠져나갔다. 전국 종사자가 6만5687명(1.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2019년 기업체 종사자 수는 광주 4만5663명·전남 4만8865명 등 9만4528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가 광주 1만349명·

전남 2829명 줄어들며 타격이 컸다. 광주·전남에서는 건설업(-2297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76명), 도소매업(-728명), 숙박·음식점업(-532명) 등에서 종사자가 줄었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광주 96명·전남 1039명 등 1135명이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상용근로자 비중은 광주 89.1%(4만693명)·전남 81.8%(3만9979명)으로, 평균(90.3%)을 밑돌며 하위권을 전전했다.
한편 2019년 광주지역 기업 영업이익은 62.8% 증가한 1조1063억원으로 조사됐고, 자산은 21조 3885억원으로 7.8% 감소했다. 부채는 14.3% 줄어든 9조5346억원이었다.
전남 영업이익은 8122억원, 자산 18조9591억원, 부채 9조463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2.6%, 50.3%, 42.3%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서민 금융지원 앞장' 광주은행, 금감원 포용금융 우수상 수상



송중욱(오른쪽 세 번째) 광주은행장이 11일 동구 충장로5가 포용금융센터에서 '금융감독원 포용금융 우수상'을 전달 받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150억원 규모 특별대출 시행
고객 44% 신용등급 상승도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최근 금융감독원 '포용금융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문을 연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서민 금융지원에 앞장선 공로 등을 인정받

았기 때문이다.
광주은행은 지역 자영업자 자금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경영컨설팅 제도를 확대·홍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68년 광주은행 창립 당시 본점이 있었던 충장로5가에 자리잡은 포용금융센터는 이달 현재 650여 명의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에 150억원 규모 포용금융특별대출을 시행했다. 소상공인 320명에는 마케팅·세무·상권분석 등 무료 경영컨설팅

을 펼치며 코로나19 위기관리지원에 앞장섰다. 1년 동안 포용금융센터 고객 44%는 신용등급이 오르기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포용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고 금융기관 및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적극업무 추진 우수사례 45건 선정

전력설비 대형 재난사고 예방 등
한국전력은 전 임직원 대상으로 '적극업무 추진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4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안전·환경·상생·대국민 서비스 개선 분야 등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사에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제고하기 위해 한전 감사실이 추진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과 블라인드 심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 결과 '철탑 붕괴위험 징후 조기 발견 및 전력설비 대형 재난사고 예방' 등 총 45건의 우수사례가 뽑혔다.
최영호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의 틀을 깨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9만전자' 된 삼성전자...거래대금 첫 8조 돌파

삼성전자 주가가 11일 9만원을 돌파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48% 오른 9만1000원에 마감하며 종가 9만원을 넘겼다.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이를 짚고 고가를 경신했다. 오전 장중에는 최고가인 9만6800원까지 오르며 10만원을 넘겼다.
이날 거래대금은 8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개별 종목 기준으로 역대 1위 일간 거래대금이다. 종전 최대는 지난 8일 기록한 삼성전자의 5조839억원이었다.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7380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개인들은 새해 첫 주인 4~8일에도 2조539억원(누적 기준)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각각 1조2540억원, 5040억원 순매도하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겼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3포인트(0.12%) 내린 3148.45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조 7391억원, 719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4조 480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루 기관 순매도 금액과 개인 순매수 금액은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48.45 (-3.73)
↓ 코스닥	976.63 (-11.16)
↓ 금리(국고채 3년)	0.969 (-0.009)
↑ 환율(USD)	1097.30 (+7.50)

세열글

"개인정보 보호·지역사회와 소통 강화할 것"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치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과 협력은 물론, 현재 전국 10개소의 정보보호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와 밀착, 소통하는 KISA를 만들겠습니다."
6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 취임한 이원태(56·사진) 신임 원장은 11일 나주 본원에서 열린 온라인 병행 취임식에서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 8일까지 3년이다.
이 원장은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디지털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KISA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보호로 디지털 국가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경기 출신인 이 원장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터넷학회·한국인공지능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선·각·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